

우선 手 中 에 在 是 資 料 만 을 다 음 에 列 舉 하 여 보 기 로 하 겠 다 .

新羅時代

華嚴寺西塔下成基壇、遠願寺址東塔上成基壇、遠願寺址西塔上成基壇、安東、臨河面臨河洞三層石塔基壇、整藏寺址阿彌陀如來造像碑龜趺受碑台、皇福寺址基壇、陝川靈巖寺址法堂基壇、慶州排盤里廢寺址出土午像板石、慶州邑城壁出土十二支像(慶州博物館)、慶州見谷面下邱里發見十二支像(慶州博物館)、慶州崔泳錄氏所藏石燈台石、(各王陵墳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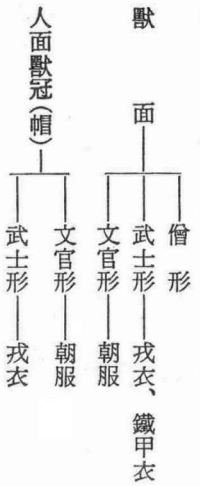
聖德王陵、眞德王陵、景德王陵、憲德王陵、興德王陵、掛陵、金庚信墓、方形墳、

高麗時代

四神八卦十二支三十六禽二十四氣鏡(國立博物館)、開豐 水落岩洞古墳壁畫、長湍法堂坊古墳壁畫、高麗石棺(國立博物館)(各王陵)

元昌王后溫鞋陵、太祖顯陵、景宗榮陵、顯宗宣陵、忠烈王妣高陵、恭愍王 妣玄陵、正陵、七陵群第二陵、七陵群 第三陵、明陵群 第二陵、明陵群 第三陵、

李朝時代와 日本의 例도 散見되는 바 있으나 앞으로 좀 더 詳細히 檢討하기로 하고 以上の 三十數例만 하더라도 그 所在가 石塔、石碑、石棺、建築基壇、陵墓、工藝品 등으로 區分할 수 있고 姿勢도 坐像과 立像의 두가지가 있으며 造像의 目的도 純佛敎의 인 것과 陵墓를 守護한다는 意圖를 가진 두갈래로 二大分할 수 있을 듯하다. 特히 形態上으로는 다음의 五類型으로 크게 分類할 수 있는데



前記한 新羅時代의 各例에서는 아직 斷定하기는 困難하나 거의 人面像은 없는 듯 하고 高麗時代에 들어가서는 恭愍王陵、水落岩洞 法堂坊古墳壁畫等에 비로소 『獸冠人面』이 나타나게 되는 것 같다. 兩古墳의 年代를 어떻게 잡는지는 아직 確定的인 말을 듣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十二支神像의 研究가 進展되면 이러한 角度로서도 무슨 端緒가 잡히지 않을까 期待되는 點도 없지 않는 것이다.

以上과 같이 本神將像은 十二支의 寅에 該當하는 眞達羅像으로 보아도 無妨할 것 같은데 그 年代에 對하여는 앞으로 鑄成記의 檢討와 더불어 決定될 問題이지만 大體로 高麗以後에 佛敎信仰上의 目的으로 造成된 것으로 解釋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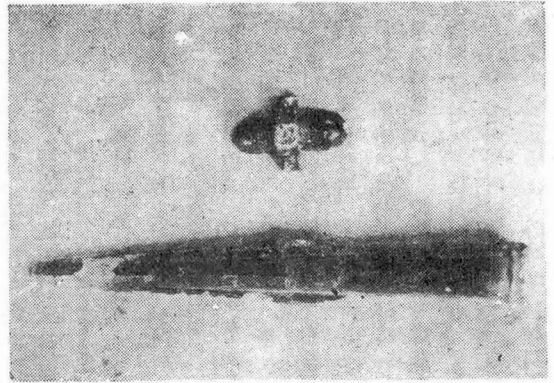
그런데 前述한 바 高麗時代의 十二支神像들이 頭部形態의 如何에 不拘하고 모두 朝服차림의 文官形인데 對하여 四神八卦十二支鏡과 더불어 戎衣의 武將形으로 된 本像은 여러가지 意味에서 注目할만한 作品이라 하겠다.

本像의 出土地라고 傳하는 晉陽郡 鳴石面 內栗里는 丹城과는 南江을 사이에 두고 不過 四km 程度の 距離에 있는 山谷인데 그곳에는 『불당골』이라는 寺址도 있다고 하나 아직 實地踏査도 못한채로 우선 여기에 紹介하는 바이다. (一〇・二六日)

靈岩出土의 銅鉞·銅製劍把頭飾

金 元 龍

一
지난 十月末 古墳發掘 때문에 全南 靈岩郡 始終面에 滯在中 全面 錦南 國民學校 校監으로부터 古物鑑定을 依頼받고 新聞紙에 載인 것을 펴보니



가 銅鉞와 劍把頭飾이었다. 이 銅製物은 今年 錦南國民學校에서 校庭整理에 쓰려고 學校附近의 標高二、三十米 程度의 禿山頂部에서 採石을 하고 있던 中 發見된 것이라 고 하며 「호미로 地上的 雜石을 잡고 있는데 나왔다」고 할 뿐 아무런 遺構나 伴出物은 없었다 한다. 正確한 地名은 靈岩郡 始終面 新燕里이며 여기는 羅州郡 潘南面所在地에서 西쪽으로 約二料이고 거기서 그대로 西行하면 榮山江口인 南海灣까지가 亦是二料쯤 된다.

二 銅鉞는 全身 潤澤있는 綠鏽로 덮혔고 刃部에 全長二三種、鑿部의 外徑二種弱 鑿部下端에 二條의 突帶가 돌러지고 一面에 木柄을 固着시키기 위한 一孔이 뚫려 있다. 銅鉞로서 普通 있는 形式이며 特別 注目할 點은 없다.

銅裝劍把頭飾은 保存狀態가 매우 좋으며 亦是 潤澤 있는 綠鏽에 덮혀 있고 總高三·五種 橫五·五種 半截齒形基部에 頂部가 十字形인 장식을 세운 것이며 이것이 銅劍의 把頭에 附着되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는데 劍身과 遊離되어 單獨發見되는 例가 있다.

三

靈岩郡에서 傳靈岩附近出土라는 細文鏡破片이 過去에 報告되었는데 ① 昨年엔가 亦是 靈岩 出土라는 砂岩製鑄范 各種(銅劍、釣針等)이 市場에 나와 基督教博物館으로 들어간 일이 있어 先史時代末期의 靈岩地方

의 重要性이 다시금 느껴지는 바이다. 過去에는 이러한 青銅器는 北에서 平壤地方、南에서는 大邱—慶州地方이 中心地라고 알려져 있고 있는데 濟州島 山地港에서의 一括遺物이나 小鹿島發見의 細文鏡、 또는 傳木浦附近出土 銅劍②等과 注意를 끄는 바이다.

註 ① 梅原末治 報文、人類學雜誌 五八卷九號

② 梅原末治 報文 史林 八卷一〇號—九卷 四號
〔附記〕 이번 發見된 遺物은 同地 錦南國民學校에서 保管中이다.

烏耳島 貝塚

尹 武 炳



烏耳島는 京畿道 始興郡 君子面 海岸에 鹽田으로 되어 있으므로 徒步로 건너 갈 수 있게 되어 있다. 水仁線 君子驛에서 下車하면 約三十分으로 現場에 到着할 수 있는 近距離이다. 五萬分之一地圖를 본다면 이 烏耳島 바로 東北方에 가까이 位置한 작으마한 섬 옆에 玉貴島라고 標記하고 있으나 이 烏耳、玉貴는 같은 吾叱耳島(우키섬)을 말하는 것이다. 輿地勝覽이나 安山邑誌에는 그 작으마한 섬을 石乙注島(돌출섬)으로 記錄하고 있다. 筆者가 이 烏耳島 貝塚를 發見한 것은 一九四九年 十月의 일이었다. 當時 三韓 古地名의 現地比定에 興味를 느끼고 있던 筆者는 馬韓 五十餘國中의 하나인 石索國과 上記 石乙注島의 地名하고 사이에 어떤 關係가 있지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實地 踏査한 結果 그 곳에서 別신동한 것을 찾지 못하고 그 이웃에 位置한 烏耳島에서 貝塚를 發見하게